

광주·전남 1만7천여 유학생 품은 인재육성의 요람

개관 30주년 맞은 남도학숙

지역 출신 서울 대학생 숙식 등 제공
850명 수용 전국 향토학사 최대 규모
월 부담금 16만원 저렴·장학금 혜택
전문가 초빙강좌·취업특강 등 교육도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상경한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 '남도학숙'이 23일로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전국 지자체 향토학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남도학숙은 지역 출신 서울 대학생들에게 주거는 물론 학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제1남도학숙(동작관)은 고향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애郷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와 글로벌 무대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중추



광주·전남 출신 서울 대학생들에게 주거와 학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남도학숙이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제1남도학숙(동작관) 전경. 남도학숙 제공

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400만 남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바탕으로 1980년 12월 설립추진위원회 창립과 동시에 추진됐다.

이후 1989년 5월 전남도에서 학숙건립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같은 해 7월 광주시와 공동건립 추진을 검토, 10월 시·도가 공동건립 추진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듬해인 1990년 12월 건립계획이 확

정되자 지역민들도 발 벗고 나섰다. 기업인, 농민, 상공인, 근로자, 학생 등 17만 명이 남도학숙 건립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나선 것. 이 성금을 기반으로 시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 278억의 재원이 마련됐고, 그렇게 1994년 2월28일 제1남도학숙이 문을 열었다.

규모는 대지 7797㎡, 연면적 3만2677㎡로 지상 11층, 지하 3층으로, 입사생은 남자 408명, 여자 442명으로 총 850명까

지 수용이 가능하다.

남도학숙은 개관 이후 1만7000여명의 학생을 배출했다.

현재 제1남도학숙은 시·도 보조금과 사생부담금, 기타 금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생부담금은 월 16만원, 신규입사비 1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모든 방은 2인 1실로 총 425실을 갖추고 있으며 무인택배 보관함부터 정독실, 컴퓨터실, 도서관, 매점,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학습 및 편의시설이 모두 마련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학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 초빙 교양강좌와 더불어 입사생 니즈에 맞춘 취업특강, 금융강좌 등 수요자 중심 강좌와 국내역사 문화탐방, 해외 체험활동, 우리고장 바로알기투어, 졸업선배 멘토링 등 다채로운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만큼 장학금 지원도 탄탄하다. 지난해 기준 남도학숙은 제2남도학숙(은평관)을 포함

해 총 1805명에게 장학금 55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설립 이래 현재까지 미래에셋, 부동장학회, 금호그룹, 삼원전력, 광주은행 등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남도학숙을 거쳐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은 사례도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도학숙은 1994년 전남과 광주 시민의 뜨거운 열원과 정성으로 설립된 이래 1만7000여 학생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돼 왔다"며 "남도학숙 개관 30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김재성 원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이끌며 세계와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3일 오전 제1남도학숙에서 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대신협 창립 20주년 기념식·컨퍼런스 성료

지역밀착형 로컬리즘 구현 등 다짐
22대 국회 당선인 등 300여명 참석
윤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전인" 격려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동반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 (이하 대신협)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전남일보 등 전국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가입된 대신협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컨퍼런스를 열어 지역밀착형 로컬리즘 구현과 지역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매체신뢰도 향상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하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해 온 대신협 회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신문의 역할을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지역신

문은 지역의 대변자이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요소"라며 축하를 보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신협은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뉴스 없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명제 아래, 지역신문이 당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타개할 법적 대응과 시장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과 지역이 산다. 지방과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러한 명제가 국민과 지역주민 모두에 공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강대식·김기웅·서범수·이상휘·이인선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우동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중석 대신협 회장과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관계자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강대식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호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호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찬영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등 언론계와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 대신협 사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신협은 2003년 3월 전국 지역일간지 26개사로 창립했으며 2004년 지역

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데 이어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자치분권대상 시상, 대선후보 여론조사 등을 공동 추진해 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